

2012. 8. 27 Vol. 35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축산차량등록제 실시

거시경제 동향

2012년 7월 고용동향

기획 정보

인적자본 위축의 원인과 실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고추 재배면적 및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본 자료는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도매시장 거래방법 · 주체 확대

- 산지 출하농산물의 규모화와 규격화의 진전에 맞추어 그간 도매시장의 농수산물거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출하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희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
 - ※ 정가매매: 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정찰제)
 - ※ 수의매매: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하여 가격을 흥정하여 결정
-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제외한 부류에 대하여는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두고 운영
 - 지금까지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개설자의 판단으로 개별 시장여건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청과부류와 수산부류 경우 경매를 통한 기준가격 제시기능과 소규모 출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며, 도매유통개선을 위해 매년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여건 등을 분석하여 5년 내에 해당부류의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 마련

- 도매시장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하대금 및 판매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정산할 경우,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동시에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도매시장거래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2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중도매인 점포 임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 농정 이슈_2

축산차량등록제 실시

※ 본 자료는 8월 22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통제로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 실시 (8월 23일부터)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 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 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하고 **소정의 교육도 이수**
 - GPS 보급: '12. 8. 23, GPS 장착의무화: '13. 1. 1

□ 주요 내용

- **(등록방법)**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¹⁾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
 - ※ 축산관계시설: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
 -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 (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 이수**
- **(준수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치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 중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

1)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 금지

- (제재수단)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기타 사항)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수집된 정보는 차량의 GPS단말기에 3개월(90일) 보관된 후 자동적으로 삭제

거시경제 동향

2012년 7월 고용동향

※ 본 자료는 8월 1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7월 고용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

※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 64.9%(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만명 증가

<2012년 7월 취업자 및 고용률>

구분	'11. 7월	'12.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전년 동월증감, 만 명)	33.5	45.5	47.2	36.5	47.0
비농림어업	(39.0)	(48.4)	(49.3)	(38.6)	(45.7)
공공행정이외	(33.0)	(43.3)	(47.1)	(37.2)	(48.6)
고용률(%)	60.0	59.7	60.5	60.4	60.3
청년층(15~29세)	(42.0)	(40.5)	(41.1)	(40.7)	(42.1)
(25~29세)	(71.0)	(69.7)	(70.3)	(70.0)	(70.5)

○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

※ 주요 국가의 실업률(% , 괄호는 청년층)

→ 미국 8.6(17.1), 호주 4.9(11.1), 일본 4.4(7.5), 독일 5.2(8.1), 프랑스 9.5(21.2), 스페인 24.3(52.1)

<2012년 7월 실업자 및 실업률>

구분	'11. 7월	'12. 4월	5월	6월	7월
실업자(만 명)	83.7	89.5	80.7	82.2	79.5
전년 동월증감(만 명)	-9.5	-4.1	-1.2	-1.7	-4.2
실업률(%)	3.3	3.5	3.1	3.2	3.1
청년층(15~29세)	7.6	8.5	8.0	7.7	7.3
(25~29세)	(5.5)	(7.6)	(7.2)	(6.7)	(5.6)

□ 농림어업 부문

- 2012년 7월 현재, 농림어업 취업자는 171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3천명(0.8%) 증가
- 2012년 7월 현재,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62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6천명(2.9%) 증가

<2012년 7월 농림어업 및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취업자>

단위: 천명, %

구분	'11. 7월	'12. 6월	'12. 7월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농림어업 취업자	1,699	1,770	1,712	13	0.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취업자	1,574	1,639	1,620	46	2.9

<주요 용어>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기획 정보

인적자본 위축의 원인과 실태

※ 본 자료는 LG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출산을 꺼야로 노동인력 둔화

-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추세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현재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OECD국의 평균 출산율은 1960년대 2.9명에서 1975년에 인구유지 출산율인 2.1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2000년대 1.7명 수준 유지
- 출산율 저하는 경제성장률 하락, 높은 교육비, 주거비 부담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
 - 성장률 저하로 소득창출이 둔화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 확대되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낀 근로자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공업경제국(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국가들은 주택구입 비용이나 교육비 등 가족형성 및 육아에 필요한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음.
 - ※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10년 기준)
→ 우리나라 7.3%, 싱가포르 3.3%(참고: 미국 2.2%, 독일 0.9%)
 -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임. 이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출산으로 구성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주택구입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
-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저출산은 노동력의 양적 확대 및 생산요소의 중요한 부분인 자본의 축적 둔화

※ 인적자본의 증가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노동의 양적인 투입 제약

→ 노동투입에 따른 성장기여도 전망(%p): (2000년대) 0.3 → (2030년대) -1.1

※ 소비계층인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평균적인 저축률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투자 둔화로 이어짐.

→ 자본투입에 따른 성장기여도 전망(%p): (2000년대) 2.4 → ('2030년대) 0.7

□ 청년실업 고착으로 노동숙련기의 상실

○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리면서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기간도 장기화되는 결과 초래

- (일본) 청년(15~24세)실업률은 1990년대 이전 4%대에서 버블붕괴 이후 9%대로 급증

- (유럽)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실업은 50% 상회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청년실업률이 이후 다소 진정되었지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15세~29세 평균 실업률은 1990~1997년 평균 5.5%에서 2000년대 평균 7.3%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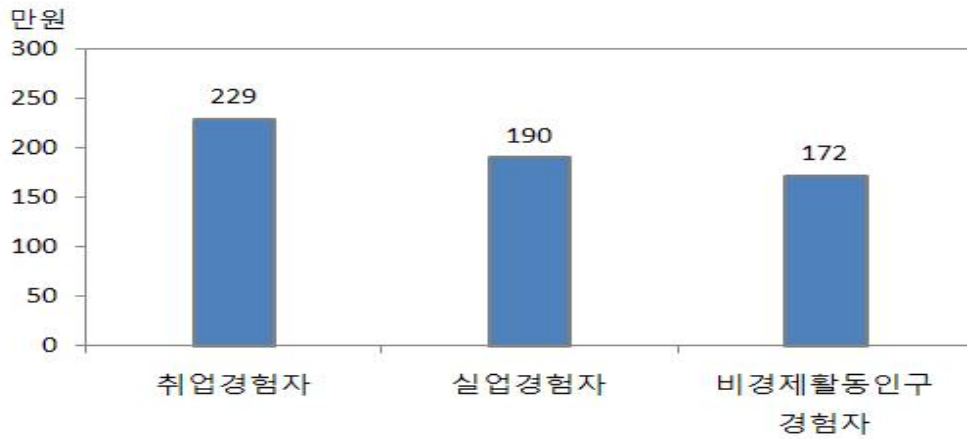
· 취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 졸업을 늦추는 학생들의 수는 2009년 말 기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과거의 실업경험이 미래 임금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²⁾를 초래하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낙인효과는 커지게 됨(주요 선진국에서는 장기간의 노동패널을 이용해 낙인효과의 크기를 분석하는 다수의 논문 제시).

- 2008년까지 실업상태였던 청년층의 2010년 월평균 임금은 취업 경험에 있는 청년층의 83% 수준인 것으로 조사(한국고용정보원)

2) 실업의 경험으로 기술과 숙련도가 떨어지고 또 실업기간이 해당 인력의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인식 등에 의해 미래에도 실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취업 시에 받게 되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

<낙인효과에 따른 월평균 임금 격차>



주: 2008년의 취업경험에 따른 2010년의 임금 수준, 자세한 내용은 박스기사 참조
 자료: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 분석.

- **낙인효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득의 상실이지만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숙련기회 상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낙인효과에 따른 청년층 유사실업자(69.3만 명)³⁾의 전체 소득 상실 규모는 2011년 기준 **2.8조원**에 달함.
-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근로의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취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청년층(니트족)⁴⁾이 양산될 우려**가 높음.
 -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니트족수**는 1995년 51만 명에서 2010년에는 **1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
 - 특히 **고학력자의 니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 대부분이 고학력자가 되고 경제 성장세는 낮아지면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잃고 구직을 포기**하기 때문으로 판단

3) 유사실업자는 순수실업자,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에 응답한 사람, 취업준비자를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4) 니트족(NEET)은 일자리를 가지지도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층을 의미

□ 인적자원의 정신적 손상과 위축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0년에 475명에서 2010년에는 1,07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두배 이상 증가
 -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자살율(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수)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 자살자수(2010년 기준)는 인구 10만 명 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1일 평균 42.6명 자살)
 - ※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1.2 명으로 OECD 평균 12.6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우울증의 증가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하락시켜 질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 감소 또한 자살자수의 증가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양적인 측면에서도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
 - 우울증 및 자살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은 11.5조 원에 달함.
 - ※ 우울증 환자의 평균 작업손실일수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우울증으로 인한 작업손실 비용은 약 6조 5천억 원으로 추산
 - ※ 연령별 자살자수와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자살에 따른 국민총생산 감소분을 계산해보면 2010년 기준 약 5조 원으로 추산

※ 본 자료는 8월 20일~8월2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지자체 수리시설 관리 취약…농어촌공사가 통합 관리해야”

-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노후화된 것이 많은데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고 보조가 거의 없어 가뭄시 물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고 보조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현재 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수리시설(19.3%)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수리시설(80.7%)에 비해 농업인의 사용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물관리가 철저하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있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은 개소당 2,497만 원 정도가 쓰이나 지자체 관리 시설은 개소당 55만 원이 쓰여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 윤광식 전남대 교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을 농어촌공사가 인수하고, 소규모 수리시설은 중·대규모 시설 설치를 통해 통폐합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논의.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는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 시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일괄 인수·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자료 : 농민신문(2012.8.22).

□ 농번기 공공근로인력 투입 늘린다

- 정부는 만성적인 농촌의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인력 수요가 몰리는 농번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대상으로 **‘농가부담 매칭급여제**(예컨대 공공근로 급여가 하루에 3만 원이라면 농가가 3만 원을 추가로 내서 근로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식)’를 운용하기로 하고, 타 공공근로 사업이 농번기에 운영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에 당장 **올 9~10월 수확기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농촌 일손돕기에 집중** 배치할 계획. 또한 현재 15~20% 수준인 **농업부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30% 수준인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봉사 대상도 취약농가에서 일반농가로 확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배정도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벌여 **내년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올해보다 25배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음.

자료 : 농민신문(2012.8.24).

□ 원산지 상습위반 품목 집중감시

-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취약품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이에 따라 원산지 취약품목은 앞으로 정부의 과학적인 조사 아래 상시 집중 관리를 받게 됨.

<원산지 감시 대상품목>

구분	품목명
농산물(19품목)	건고추, 상추, 호박, 고구마, 당근, 생강, 감자, 포도, 꽃감, 도라지, 배추, 잣, 마늘, 양파, 브로콜리, 표고버섯, 호두, 고사리, 땅콩
축산물(4품목)	닭고기, 달걀, 한우(갈비, 등심), 돼지고기(4종)
가공품(3품목)	두부, 콩나물, 고춧가루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는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시스템 모니터링과 시장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해당 품목에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국 도매시장의 유통물량 및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돼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농민신문(2012.8.20).

□ 김장철 대비 양념채소 수급불안

- **폭염으로 인해 고추 작황부진으로 추석시기에 양념채소류 수급이 불안할 전망, 특히 추석 이후 김장철까지 공급이 부족할 전망.** 올해 고추 생육기에 비가 적게 내려 역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은 줄었으나, 가뭄, 이상고온현상으로 수분 및 생육이 저조하여 평균대비 **72% 수준의 작황**이 예상 있으며, 특히 지난해 탄저병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재고량이 부족해 올해 건고추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합정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국영무역처 채소특작팀장은 “추석 수급뿐만 아니라 김장철을 대비하기 위해 **마늘 의무수입물량 6,400여톤을 10월까지 도입**하고, **국산 햅마늘도 6천 톤을 수매**할 예정”이라며 “**고추도 가격이 오르면 지난해 재고 1,250톤을 방출할 계획**”이며, “올해 생산량 감소로 인해 부족한 국내 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수입권 2만 5천 톤을 민간에 배분하고 국내 수급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2.8.21).

□ 축산농에 사료 연금구입비 지원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국제곡물값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 외상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현금구매지원자금 500억 원(융자금)을 신규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 축산농가들은 운영자금에 여유가 없어 배합사료의 50% 정도는 외상으로 구매해 쓰는 게 일반적이는데, 이 경우 연 12~18%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농가경영에 큰 압박...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들이 현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것으로서 현금 구매시 농가는 외상거래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향후 사료곡물 도입가격 상승에 대비해 사료업체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료업체에 대한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600억 원에서 내년에 950억 원으로 58%확대**하기로 함.

자료 : 농민신문(2012.8.22).

□ 구제역 백신접종후 이상육 37% 발생..안전성 검증기준 마련 시급

-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2차 돼지 구제역·열병 박멸대책위원회를 열고 구제역 백신과 접종 문제 등을 집중 논의. 이날 회의에서 이영규 전국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구제역 백신접종 후 이상육이 37%나 나오고 있고 1마리 1침을 철저히 해도 이상육이 발생**하고 있어 백신 부형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민동수 한국양돈연구회장도 “백신 약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기준을 만들어 동일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정성대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구제역 백신이 돼지에서만 문제되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 박봉균 서울대 교수는 “구제역 백신은 긴급백신 접종에 의한 정책적 수단에 따라 진행된 만큼 부작용 보다는 질병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이득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상시 백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제시.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8.22).

※ 본 자료는 8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고추 재배면적 및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고추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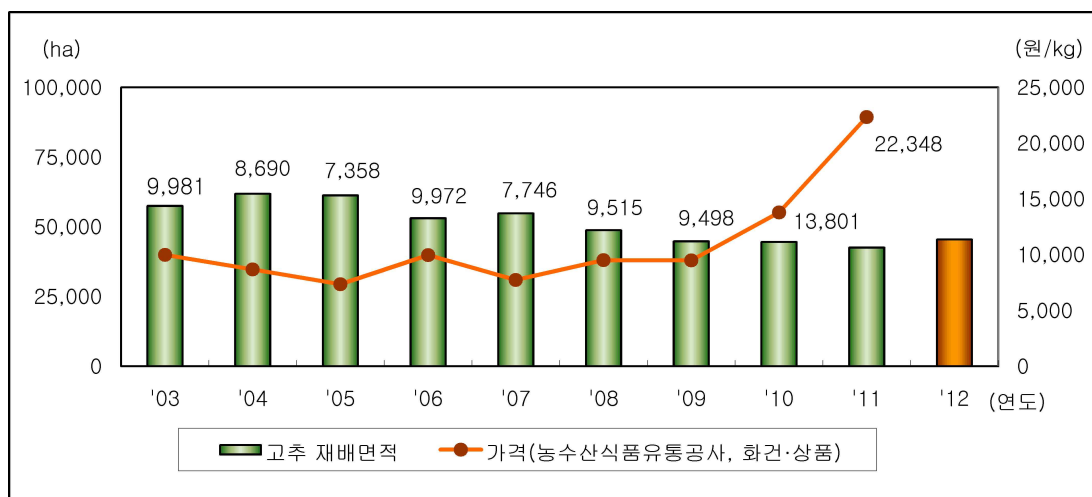
○ '12년 고추 재배면적은 45,459ha로 '11년보다 2,885ha(6.8%) 증가

- 지난해 탄저병 등 병충해 피해가 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단위면적(10a)당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올해는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재배면적 증가

※ 고추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로 최근 몇 년간 농가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 최근 10년간 고추 재배면적 연평균 감소율(-5.0%): ('01)70,736 → ('11)42,574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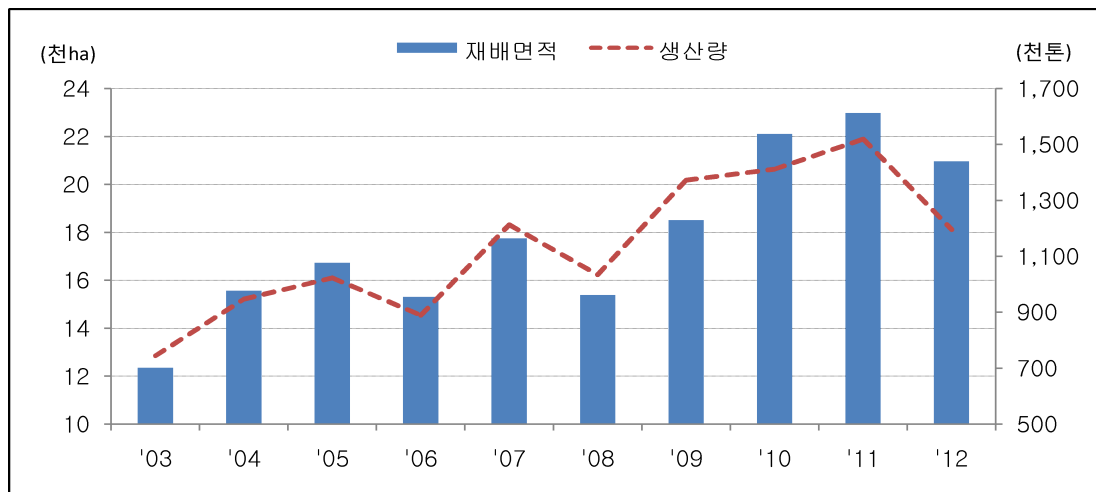
〈연도별 고추 재배면적 및 도매가격〉



□ 양파 생산량

- 양파 생산량은 1,195,737톤으로 전년보다 324,279톤(21.3%) 감소
 - 양파 재배면적: 20,965ha로 전년보다 2,011ha(8.8%) 감소
 - '11년 양파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최근 2년간 가격이 좋았던 마늘 재배로 전환되어 양파 재배면적이 감소
 - 10a당 생산량: 5,703kg으로 전년의 6,616kg보다 13.8% 감소
 - 4월 생육성장기에 집중호우로 잎마름병이 발생되어 갯수가 감소하고, 뿌리가 굵어지는 시기(5~6월)에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감소
- 시도별 양파 생산량은 전남지역이 582,994톤으로 전체 생산량 중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282,022톤(23.6%), 경북 152,452톤(12.7%) 순으로 나타남.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